

# 남북관계 추진현황

2004. 8.31

통 일 부

## 1. 최근 남북관계 상황

- 최근 남북관계는 △조문 문제, △탈북자 국내이송 문제, △美 하원 북한인권법 통과 문제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일시적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.
  - \* 해운협력실무접촉(7.13-15) · 군사실무대표회담(7.19) · 15차 장관급 회담(8.3-6)무산, 8.15 민족공동행사 등 일부 민간교류 차질
- 을지연습 등에 대한 대남비난 등을 감안할 때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이어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당초 합의된 일정(8.31-9.3)대로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경색 국면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-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지원 및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, 이는 북측에게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.
  - \* 판문점을 통해 「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설운영 합의서」 등 서면 교환 방식의 협이는 계속 진행중
- 우리 정부는 남북화해협력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, 경협사업과 민간교류를 통해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화재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## 2. 북핵문제 동향

### □ 해결방향

-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6자회담의 틀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7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 수용을 촉구하고, 북한의 입장 전환을 설득하였으며,
- 6자회담 및 실무그룹회의(Woriking Group Meeting)를 통해 참가국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,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\* '03.8.27-29 제1차 6자회담, '04.2.25-28 제2차 6자회담, '04.6.23-26 제3차 6자회담, '04.5.12-15 제1차 WG 회의, '04.6.21-22 제2차 WG 회의

### □ 핵심쟁점

- 한·미 :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·폐기·검증을 전제로 에너지 지원 등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
- 북한 : 핵 동결과 이에 대한 보상에 주안점을 두면서, 핵 폐기는 동결기간중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, 고농축우라늄 (HEU) 이용 핵개발 프로그램 존재는 부인

### □ 향후 대응방향

- 제4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
- 긴밀한 한·미·일 공조하에 중·러와의 협력 강화, 특히 미·북간 접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
-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핵 해결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.

### 3. 추진성과

- 참여정부 출범 당시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위협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해 왔으며, 적지 않은 성과 거두었습니다.
  - 남북관계가 분야별로 정례화·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.

#### 가. 남북 대화

- 지난해 38회(106일), 올해 이미 25회가 개최되었습니다.
  - 점진적 증가 추세 : 27회('00)→ 8회('01)→ 33회('02)→ 38회('03)
  - \* 참여정부 출범이후 56회, 6.15 공동선언이후 119회

#### 나. 남북 교역

- '01년 4억불→'02년 6.4억불→'03년 7.2억불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
  - \* 중국에 이어 북한의 2위 교역국('03년 북중교역 : 10억 2,300만불)
  - 금년 상반기에도 3.2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1% 증가
  - 연 10억불 교역액 조기 달성 추진을 위해 노력
  - \*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소, 안정적 해상운송방안 마련, 남북 연결 도로를 활용한 교역물자 육로 수송 추진 등 교역 인프라 구축 필요

#### 다. 인적 왕래

- 작년 16,303명(방북: 15,280명, 방남: 1,023명), 올해 상반기 9,866명이 남북을 오고갔습니다.
  - 특히 「방북」은 접촉점의 확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
  - \* '89-'97(2,405명, 연 267명)/ '98-'03(52,852명, 연 8,809명) 33배

## 라. 남북 경협

### ① 개성공단 건설

#### □ 현황

-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
  - 이중 시범단지(2만 8천평)는 지난 6월 30일 부지조성 완료이후 공장건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며,
  - 15개 기업들은 금년 말까지 입주 및 가동을 위해 자금조달, 공장 설계, 설비 조달, 생산·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
  -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 
(공정 약15%)

#### □ 중요성

-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한의 기술·자본과 북한의 토지·인력을 결합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상생의 협력사업입니다.
  -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 :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 완화
  - 북한 변화 및 경제난 완화에 기여
  - 남북관계 개선촉진 : 화합의 실험실, 상호 경제적 의존성 증대

#### ※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(한국은행 2004.7)

- 남한경제 : 3단계 9년차 직접효과는 연간 생산 83.9조원, 부가가치 24.4조원, 고용 10만명 창출
- 북한경제 : 3단계 9년차 직접효과는 연간 총수입 6억불, 고용 73만명 창출

## □ 지원 대책

- 정부는 개성공단안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, 지원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
  - 내부기반시설(폐수·폐기물 처리장, 용수 등) 지원, 외부기반시설(전력·통신)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북측과의 협상을 타결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.
  - 초기 투자비 등을 고려, 정부가 건축비 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 제도(20억 범위내 손실금 90% 보조)를 시행합니다.
  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「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 절차 특례」 제정 및 관련 처리규정 개정했습니다(7.8부터 시행).
    - \* 방북신고(7일→4일) 및 협력사업 승인 기간(30→15일) 대폭 단축, 사업 신청서 등 첨부서류도 11종→최소 2종 이내로 감축
  - 국방부, 유엔사와 협의 후, 남북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출입·통행 간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.
  - 반출물자에 대한 심사판정, 사전·사후 철저한 통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전략물자 반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.

## ② 남북 철도·도로 연결

-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연결사업은 지난 2000년 9월 18일 공사 착수 이후 꾸준히 공사를 진행하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.
  - 남북간에 합의한 대로 오는 10월 도로가 개통되고, 철도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.

2004. 8.28 현재

구 분		우 리 측	북 측
경의선	철 도	'02.12.31 완료	본선궤도부설 완료
	도 로	'03.10.31 완료	포장공사 진행 중
동해선	철 도	궤도부설공사(36%)	본선궤도부설 완료
	도 로	포장공사(75%)	포장공사 진행 중

※ 철도 시험운행 가능구간 : 경의선(도리산역-판문역) 동해선(통일전망대-감호역)

- 남북간의 도로 개통은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인원과 물자의 수송,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.
  - 남북간 직교역로의 확보로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, 민간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.
- 철도 시험운행은 본격 개통에 앞서 철도노반 및 궤도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·보완하고,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게 됩니다.
  - 남북철도가 연결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대륙철도와의 연결문제에 관해 관련국가간의 협의도 필요합니다.

### ③ 금강산 관광사업

- 금강산 관광사업은 육로관광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당일, 1박 2일 관광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- \* 금년 7월 이후 월 30,000명이 관광하고 있으며 '98.11-'04.7 총 70만여명 관광
  - 우리측 사업자는 2003년 7월부터 세계관광기구(WTO) 등과 함께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, 특구 개발시 관광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### ④ 그밖에 당국간 경협 사업

#### □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

-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, 2004년 3월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.

- 남북은 △5월중 각기 자기측 지역 단독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남측은 북측 단독조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, △10월중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.
- 우리측은 현지조사용 기자재를 북측에 전달(5월)하였고 6월초부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.

## □ 해운 협력

- 남북해운합의서 및 동 부속합의서 채택('04.5.28)으로 향후 남북 해운항만 분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남북 각기 7개 항구간 항로 개설,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및 유선 통신망 구성·운영, 해양 사고시 상호협력 방안 등에 합의했습니다.

## ⑤ 남북협력기금

-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2000년부터 사업비 집행실적이 매년 30%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.('00: 2,048억→'01: 2,541억→'02: 3,485억→'03: 4,420억)
- 남북협력기금은 앞으로도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1차적 재원으로서는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.

## 마. 이산가족 문제 해결

### ①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·제도화 추진

- 우리측은 이산가족 고령화 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,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·정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

\* '04. 7월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3,519명

- 생사·주소확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, 서신교환→ 상봉→



재결합 구도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남북정상회담이후 1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상봉 9,977명, 생사주소 확인 23,946명, 서신교환 6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.
- 남북자·국군포로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.
  - 당국 및 적십자회담 등 각급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

## ②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추진

- 2003년 11월,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면회소를 우리측이 「전담 건설·전담 운영」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.
  - \* 1,000명 수용 가능한 콘도 형식의 면회 숙박시설로 조성(연건평 6,000평 규모)
  -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, 남북관계 상황이 풀리면 북측과 협의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.

## 바. 대북지원

- 정부차원에서는 식량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·의료분야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
  - 비료 : 올해 20만톤 지원 완료(\* '01: 20만톤, '02: 30만톤, '03: 30만톤)
  - 쌀 : 차관형식으로 제공(9차 경추위시 40만톤 지원 합의), 국내산 쌀 10만톤 육로수송은 원활히 진행 중(현재 44,000톤 수송완료)
  - \* '00년 30만톤(옥수수 20만톤 별도 지원), '02년 40만톤, '03년 40만톤
  - \* 분배투명성 확보 : △쌀 포대(1천만개)에 「대한민국」을 표기, 매 10만톤 수송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·서해 및 내륙

### 지역 각1회 이상 분배현장을 확인

-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(약품·의료장비 등 70만불 상당) 지원,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개선사업(올해 100만불) 지원
- o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지원과 상호보완 구도 하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
- 보건의료·농업개발·취약계층 등 역할 분담(98 7여위 기근 저서)
- o 한편, 지난 4월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재해 긴급구호 및 복구를 위해 천게까지 총 615여(정부·민간) 천저 267여 미가 782여 상당 액을 북한에 지원하였습니다.
- \* 국제사회 지원액(245억)과의 비교 : 2.6배

#### ※ 지난 9년간('95.6-'04.7) 한국의 대북지원 현황

- o 1조 1,808억원(현물지원)
  - 정부 : 7,270억원(6억 7,829만불), 민간 : 4,538억원(3억 7,452만불)
  - \* 국제사회와의 비교(정부차원) : 미국(6억5천여만불), EU(3억4천여만불, 중국·일본(2억 5천여만불)
- o 식량차관 제공액을 포함하면, 연평균 1,688억원 지원
  - '03 국방비 17조 4천억원의 1/103 (1%)
  - 서독의 대동독 지원액('73-'90, 18년간) 연평균 32억불의 1/24
- o 이를 4700만 인구로 나누면, 한국국민 1인당 연평균 3,591원 지원

## 사. 군사분야의 진전

- 철도·도로 연결, 개성공단, 금강산 관광 등 DMZ를 넘나드는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군사 분야 협력의 가능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.
- 장전항·개성 개방, 지뢰 제거('02.12.6), 군사직통전화 개통('02.9.24, '03.12.5), 평화회랑 조성 (서: 30만평/ 동: 12만평)
  - \* 9.17, 8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"쌍방 군대가 금강산 육로관광, 개성공단 건설, 철도·도로 연결작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인원과 차량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" 고 강조
- 지난 5월 26일, 6월 3-4일,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이 개최로 이어졌습니다.
- 「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」를 채택한 바 있으나
-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이 합의된 날짜에 열리지 못함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회담이 개최되면 △합의이행 일정 재조정 문제, △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